거북이 임선영 "멤버들에게 맞은 적 있다"

이성욱 송호범 이어…연예계 또 폭력시비 왜?

"과거 얼굴 등 맞고 강제탈퇴 당했다"
'내마오'서 멤버간 마찰 주장에 파문
옛 동료 지이 "거짓말 마라" 불쾌감
연예계 "잇단 폭행시비 안타까울 뿐"

연예계가 연이은 폭력 시비에 얼룩지고 있다. 최근 그룹 R.ef의 이성욱이 전처와 폭행 시비로, 그룹 원투 출신 송호범은 "아내를 성희롱했다"며 한 남성에 폭력을 행사해 입건됐다. 또 혼성그룹 거북이의 원년 멤버 임선영이 과거 멤버들에게 폭행당하고 강제탈퇴당했다고 발언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의 폭행 시비는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2일 밤 방송된 KBS 2TV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이하 '내마오')에서 임선영은 "(멤버들이)얼굴과 몸을 막 때렸다. 보컬이다 보니 (내게)스포트라이트가 왔다. 그런 걸 (멤버들이) 많이 질투해 멤버간 마찰이 있었다. 한 번은 생방송 전에 음식점에서 주문하는데 숟가락이 날아왔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그러나 거북이의 다른 멤버 지이가 13일 SNS를 통해 "가슴에 손을 얹고 거짓하나 없다 말할 수 있는 거니? 알고 있을 텐데. 입은 나도 있단다. 이런 불명예를 안겨줄 수 있는 거니?"라며 불쾌감을 드러내며 반박했다. 여기에 '내마오' 제작진이 "임선영의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재반박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밤 KBS 2TV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에 출연해 그룹 거북이 활동 때 멤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임선영. 사진출처 | KBS 화면 캡처

앞서 이성욱도 전처와 폭행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7일 이성욱이 전처와의 쌍방폭행 보도에 대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으며 만취한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해명하자 전처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이성욱에게 폭행당했다"며 얼굴 상처와 멍 자국을 공개했다. 이에 이성욱이 "사실무근이며 법적대응하겠다"고 재반박했다. 송호범은 9일 새벽 쇼핑몰 관련 일을 마치고 아내와 귀가 중에 한 남성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송호범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나도 사과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연예인 폭행 시비는 대중에게 화제가 되는 만큼 연예인 입장에서는 이미지에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다. 14일 한 연예계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잘잘못을 떠나 자기 자신과 연예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준다"면서 "연예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신중한 행동과 처신이 요구되는데, 최근 들어 잇달아 폭행 시비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호랑이 선생님' 조경환 간암 별세 천상배우, 천상의 무대에 오르다

향년 67세 투병 2개월만에…내일 발인
"아버지같은 존재였는데…" 애도물결



'후배 아끼는 선배이셨는데….'

13일 간암으로 별세한 연기자 조경환(사진)의 비보에 생전 그의 따뜻했던 모습을 기리는 동료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조경환은 두 달 전께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13일 오전 9시20분 향년 67세를 일기로 서울 잠실동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1969년 MBC 공채 탤런트 1기로 데뷔한 뒤 1970~80년대 '수사반장'의 조형사로 기억되는 그는 1982년 '호랑이 선생님'에서 엄하지만 따뜻한 선생님으로 출연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고인은 생전 후배들에게만큼은 한없이 인자한 선배였다.

2009년 MBC 드라마 '종합병원2'을 통해 데뷔해 현재 왕성한 연기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 연기자는 14일 "연기를 못하는 후배를 혼내기보다는 술 한 잔을 사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던 선배였다"고 회상했다. 생전 마지막 작품인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노란복수초'의 한 제작진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였는데도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팀을 이끌어 주셨다"며 "현장 스태프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며 비보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SNS를 통한 후배들의 애도도 이어지고 있다. 연기자 박은혜는 13일 트위터에 "김호진 오빠한테 '선생님은 추위를 안 타셔서 겨울에 항상 시원하다고 하셨다'는 얘길 하며 조만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신혼 초 어묵 볶음 맛있게 하는 법도 알려 주시고 따뜻한 분이셨다"며 비통해 했다. 개그맨 남희석은 14일 트위터에 "TV를 통해 보아 온, 좋아하던 분을 실제로 만나 술자리도 함께 갖는 신기한 경험도 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 한 켠이 허하다"고 적었다. 소설가 이외수는 "푸근하면서도 호방한 모습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것이다"며 고인을 애도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6일 오전 8시30분이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코믹벗고 독해진 유해진, 4연속 흥행참패…왜?

액션 도전 영화 '간첩' 130만 관객 그쳐



배우 유해진(사진)이 최근 출연하는 영화마다 흥행에 실패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한때 충무로 흥행 영화마다 등장해 발군의 코믹 연기로 인정받은 유해진은 최근 비중을 높여 주연으로 참여한 영화가 잇따라 실패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특히 흥행 실패작들은 유해진이 코미디 장르에서 벗어나려 연기 변신을 노린 작품들. 때문에 유해진의 향후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

올해 유해진이 주연한 영화는 '미쓰 GO'와 '간첩'. 하지만 잇따라 흥행에 실패했다. 9월 20일 개봉한 '간첩'은 극장가 대목인 추석을 겨냥한 영화. 하지만 14일까지 130만 명(영화진흥위원회 집계)을 모으는 데 그쳤다. 개봉 직후 스크린을 500여개관까지 확보하고도 4주 동안 관객이 150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간첩'은 유해진이 남다른 각오로 참여한 영화다. 코미디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싶다는 목표를 여러 차례 말해 온 그가 연기 변신에 나섰지만 결과는 아쉽다. 앞서 유해진이 고현정과 주연해 6월 개봉한 '미쓰 GO'의 상황은 더 하다. 61만 명의 관객으로 막을 내렸다. 여기서도 유해진은 강렬한 액션과 멜로 연기로 변신을 시도했지만 관객과 소통하는 데 실패했다.

유해진의 연기 변신이 빈번히 흥행 성적 저조로 이어지면서 충무로에서는 유해진이 슬럼프를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흥행 실패가 2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해진의 지난해 출연작 '적과의 동침'과 '마마' 역시 나란히 24만 명 동원에 그쳤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900만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우 이병헌이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셈광장에서 열린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900만 관객 돌파 감사 이벤트에서 영화 속 의상인 곤룡포를 입고 여성 팬을 포옹하고 있다.(위) '광해, 왕이 된 남자'는 9월13일 개봉해 31일 만에 9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아래 사진은 추창민 감독과 이병헌 류승룡 한효주 김인권 장광(오른쪽부터) 등 출연진이 관객에게 큰 절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스틴 비버·핏불과 나란히…특급 싸이 '미국상륙작전'

美서 연말까지 대형 콘서트 등 바쁜 일정

'국제가수' 싸이가 미국의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대형 콘서트에 잇달아 출연하며 연말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할 전망이다. 11월 중순 미국 첫 앨범을 내놓는 싸이는 잇단 대형 무대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게 됐다.

15일 호주를 거쳐 18일 미국 LA로 이동하는 싸이는 21일(이하 한국시간) 현지 유명 라디오 AMP가 여는 '핼로윈 매스커레이드' 축제에서 엘리 굴딩, 리타 오라와 함께 합동공연을 벌인다. 엘리 굴딩은 '라잇츠'로 빌보드 핫100 최신 차트 15위에 올랐고, 리타 오라는 9월 영국 UK차트 앨범차트 정상을 차지한 신예. AMP 측은 최근 젊은층에서 가장 핫한 스타로 꼽히는 세 스타를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4일에는 미국의 유명 송년 콘서트인 '징글 볼 2012'(Jingle Ball)에 원더걸스와 함께 출연한다. 12월2일과 4일 2회에 걸쳐 미국 LA 노키아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 원더걸스는 첫 날, 싸이는 둘째 날에 각각 나선다. 테일러 스위프트, 니요, 저스틴 비버, 케샤, 플로라이다, 아울시티 등이 함께 출연한다. 2000년부터 미국 LA 라디오 채널 KIIS-FM가 열어 온 '징글볼' 콘서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송년 콘서트. 1일 1회 행사였지만,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각기 다른 출연진으로 이틀간 2회 공연을 펼친다.

12월16일 시카고 올스테이트 아레나에서 열리는 송년 콘서트 '징글 배시'(Jingle Bash)에도 출연한다. 미국 CBS시카고의 FM라디오 B96이 여는 '징글 배시' 콘서트에는 저스틴 비버, 칼리 래 젭슨, 핏불, 아프로잭 등 톱가수들이 함께 출연해 싸이와 만난다.

한편 '강남스타일'로 12일자 미국 빌보드 핫100(싱글차트) 2위에 오른 싸이는 13일자 영국 UK차트 톱40 싱글부문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김원겸 기자



안방정벌 나선 김현중 "연기 올인!"

드라마 '도시정벌' 위해 본업 가수활동도 자제

가수 겸 연기자 김현중이 그 어느 때보다 연기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두 번째 주연작인 드라마 '도시정벌'을 위해 촬영 이외 모든 것을 미뤘다.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연기를 시작한 김현중은 첫 주연작인 2010년 MBC '장난스런 키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연기에 뛰어들었지만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이에 김현중은 명예회복을 노리며 '도시정벌'을 준비했다. 첫 액션 연기에 도전하는 만큼 한창 촬영 중인 현재도 틈 날 때마다 액션스쿨을 찾고 있다. 김현중은 7월 시작된 일본 촬영을 마치고 9월25일부터 국내 촬영에 돌입했다. 이후 동남아로 넘어가 촬영을 이어간다. '도시정벌' 촬영 외 다른 스케줄은 최대한 자제하며 본업인 가수 활동도 내년까지 쉴 계획이다.

이 같은 열정에 힘입어 '도시정벌'은 촬영 전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 4개국에 118억 원의 가격에 선판매됐다. 또 내년 상반기 KBS 2TV 종영 후 일본 케이블채널 DATV에서 방송된다. 이에 앞서 김현중은 1월 일본 고베와 사이타마에서 특별 이벤트를 열고 팬들에게 드라마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연예뉴스 스테이션

MBC 예능간판 '무한도전' 300회특집 예고편 눈길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20일 300회를 맞는다. 앞서 '무한도전'은 13일 그 예고편을 방송해 눈길을 모았다. 14일 '무한도전' 제작진은 300회를 맞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이야기로 구성한다"면서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노홍철, 정형돈, 하하 등 멤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스태프와도 이야기를 하는 구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악평론가 강헌 씨 교통사고 중상…동승女 사망

유명 음악평론가 강헌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고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4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10분께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리 지곡교차로에서 음악평론가 강헌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영주 방향으로 달리던 도중 신호대기 중이던 25t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자리에 타고 있던 여성 유 모 씨가 숨졌다. 또 강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작가 심 모 씨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편집 | 강문규 기자 mkkang@donga.com 트위터@ mkkkang

복권

나눔로또 6/45 제51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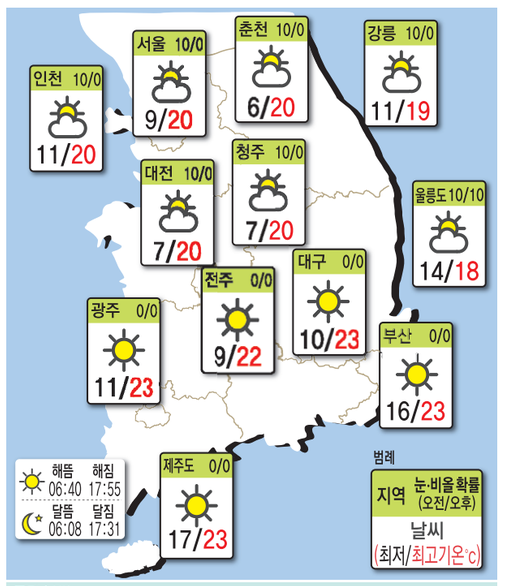
당첨번호						보너스
2	11	12	15	23	37	8

등수	당첨조건※	당첨금액
1등	6개 숫자 일치	13,200,466,875원
2등	5개+보너스 숫자 일치	62,859,367원
3등	5개 숫자 일치	1,517,296원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총 당첨금은 총 판매금액의 50% 이상임

오늘의 날씨

10월 15일 월요일 (음력 8월 30일)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16일(화)	11/22	8/21	9/23	12/23	11/23	17/23
17일(수)	13/26	9/16	12/17	12/20	13/21	16/20
18일(목)	8/18	4/17	7/18	9/20	10/19	14/18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우)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발행인	송대근	대표전화	02 2020 0114
인쇄인	최맹호	편집부	02 2020 1039
편집인	이성춘	스포츠1부	02 2020 1052
편집국장	양성동	스포츠2부	02 2020 1051
광고국장	이승욱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1
		생활경제부	02 2020 1062
		사진부	02 2020 1068